

## 193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 The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30s in Korea

김 은 정\*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각종 행사에서 경호 |
| II. 만주 한인들의 경호  | V. 언론에서 해외 경호  |
| III. 경찰 업무에서 경호 | VI. 결론         |

#### 〈요 약〉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경호사, 경호국, 국민부, 경호조례, 1930년대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 I. 서론

한국의 경호사(警護史)에서 1930년대는 공백기라고 취급될 정도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공백은 단지 경호사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1930년대에 내포된 시대적인 배경에서부터 기인한다. 즉, 일제강점기 때에 왜곡된 자료 산출과 소멸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종래 경호사의 주된 참고 자료인 경찰사 관련 서술조차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는 정부수립 후에 경호규정이 법률로 제정되었던 1940년대와의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1930년대 경호국·경호분국과 경호조례의 존재를 비롯해서 임야경호단·철도경호·경호선·경호함의 등장까지 경호와 관련된 공식적인 활동들을 고찰했고, 다양한 경호 활동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해외의 경호 관련 언론 보도들도 참조하였다. 또한, 당시 암울한 시대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각종 행사에서 대중들의 안전을 위해 장내를 정리하고 유명 인사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1930년대 경호의 역할이 오늘날의 경호 활동에 미친 영향도 가늠해보고자 한다.

당시에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경호 활동이 진행될 예정임을 사전에 공지하기도 했고, 경호 활동에 대해서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요청도 있었다. 이처럼 경호가 대중들의 인식 속에 행사의 질서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1930년대에 전개된 경호 관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경호 활동을 위시하여 만주지역의 한인들에 의해 등장한 경호 활동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그 당시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들과 세부 문서들을 심도 있게 활용하였다.

## II. 만주 한인들의 경호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에서 필수적인 경호원의 역할은 1920년대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의 경호 관련 활동들을 활성화시켰고(김은정, 2008: 61-62), 1930년대에도 그러한 활동들이 계속되었다. 여러 항일운동(抗日運動) 단체들의 경호 관련 활동 중에서도 국민부(國民府)의 등장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1929년 4월 1일에 건립된 국민부는 만주에서 활약했던 항일독립운동단체인 참의부(參議府)·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sup>1)</sup>의 통합체로

서, 독립군을 관장하는 군정부(軍政府)라는 특성과 함께 재만(在滿) 한인들의 자치행정기구 역할을 병행하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녔다. 물론, 당시에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임시정부가 존재했지만, 만주지역에서 조직한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은 임시정부의 권한 밖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조범래, 1988: 404-405). 이들은 일본인 군경(軍警)을 사살하거나 일본의 밀정을 찾아서 숙청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변장하여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결국, 국민부는 삼부(三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결합체로서 만주 내 한인 사회의 자치를 집행하는 민정(民政)기관과 무장 항일전을 추진하는 독립군(獨立軍)들의 군정(軍政)기관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던 것이다(윤병석, 1989: 142-143).

그러나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국민부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는 1929년 9월 20일에 있었던 제1회 중앙의회의 결의에 따라 국민부가 민정부의 성격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까지 병행해온 독립운동과 자치(自治)인 민정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은 민족유일당조직동맹(民族唯一黨組織同盟)에 부여하고, 국민부는 재만 한인의 자치만 담당하게 된 것이다(조범래, 1988: 416-419). 이러한 역할 분담은 초기의 국민부가 정의부를 중심으로 둔 군정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재만 한인들의 자치를 담당하는 민정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국민부의 특성이 급변하게 되었던 수순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달 재만독립단(在滿獨立團)의 통일체로서 조직된 국민부는 중앙회의를 열고 독립운동과 자치운동(自治運動)을 분립(分立)하기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국민부 소속 10대(隊)의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을 민족유일당 촉성회(民族唯一黨促成會)로 넘기고 순연(純然)히 농민(農民) 자치운동(自治運動)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강령을 선언함과 동시 역원(役員)도 개선(改選)하다(국사편찬위원회, 1974: 274).

경호의 중요성은 만주의 한인 자치행정기관으로 변화한 국민부에서 대두되었는데,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던 군사부(軍事部) 대신에 국민부 내의 치안을 담당할 공안부(公案部)가 조직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부는 자치기관의 공안을 담당할 목적으로 공안부 관할 하에 경호국(警護局)과 경호분국(警護分局)을 각 요충지마다 설치하는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하였다(윤병석, 1989: 172; 조범래, 1988: 419).

- 1) 참의부는 1924년에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의 군단(軍團)으로 항일투쟁에 큰 공적을 쌓았고, 정의부는 1924년 11월 만주에서 조직한 항일독립운동단체이며, 신민부는 1925년 북만주에서 김좌진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군 통합 단체이다.

국민부(國民府)는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의 자치기관(自治機關)으로 전(專)히 기방면(其方面)을 담당(擔當)하기로 하고, 강령(綱領) 급(及) 헌장(憲章)의 개정을 행하여 중앙기관 중 군사부(軍事部)를 폐(廢)하고…국민부 중앙에 신(新)히 공안부(公安部)를 설(設)하여 각 지주요지점(地樞要地點)에 경호국(警護局) 우(又)는 경호분국(警護分局)을 배치(配置)하기로 되다. 자(茲)에 종래의 군사행동은 차(此)를 분리하기에 지(至)하였으나 사법(司法) 급(及) 경찰(警察)에 관한 사무는 의연(依然) 국민부에서 집행되어…(국사편찬위원회, 1968: 725)

당시 약 200만 명(채근식, 1949 : 149)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의 중심지역마다 경호국과 경호분국이 설치된 것을 통해서 볼 때, 국민부가 경호에 상당한 비중을 안배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경호국과 경호분국의 활동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지 못했는데, 이는 공안질서의 보장과 공안행정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경호국과 경호분국이 1930년 2월 20일에 국민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경호국과 경호분국이 폐지된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경호국과 경호분국이 너무 많이 설치되었고, 둘째는 명령계통이 통일되지 못하여 오히려 민중공안을 혼란시켰으며, 셋째는 경호국과 경호분국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치행정의 통일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2월 20일 집행위원회에서 각 추요지(樞要地)에서 본부(本府, 국민부-연구자) 경호국의 설치(設)는 부내(府內)의 공안질서의 보장(保障)과 공안행정의 철저(徹底)적 실현 통일을 주안으로 하였으나 반년 간 실천한 경험에 의하면 경호국(警護局)<sup>2)</sup>의 별설(別設)은 (一) 다종기관의 설치이며 (二) 명령다문으로 출(出)하여 민중공안을 난(亂)케 하며 (三) 기관의 별설(別設)에 의하여 자치행정의 통일발전을 도(圖)키 난(難)한 폐해(弊害)있는 현상이므로 을 폐지하고 경호국에 관한 일체의 행정사무를 지방집행위원회 급(及) 도집행위원회에 귀속케 함과 동시에 경호조폐를 발포하다(국사편찬위원회, 1968: 740).

비록 경호국(警護局)과 경호분국(警護分局)이 폐지되었지만 경호는 여전히 국민부 내 공

2) 원문에는 '경무국'으로 되어 있지만, 오타일 가능성이 높아서 '경호국'이라고 기재하였다. 국민부의 공안부 내에 설치된 경호국과 경호분국의 폐지에 대한 내용 중 '경무국'의 폐단을 언급한 것이 문맥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에서는 모두 '경호국'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부 경호국의 설치…반 년 간 실천의 경험에 의하면 경호국의 별도 설치…폐해가 있다는 견지에서 경호국을 폐지하고…(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 10』, 481쪽).”

안질서와 공안행정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경호 관련 업무의 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경호조례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된다. 즉, 경호조례를 통해서 공안부 내 단독기구였던 경호국과 경호분국 대신에 국민부의 지방집행위원회와 도집행위원회<sup>3)</sup>로 경호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지만, 경호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는 1930년 2월 20일 국민부(國民府)의 집행위원회에서 발포한 경호조례(警護條例)의 일부이다.

제1조 본부(本府) 관내 각 지방(特別구) 구둔(區屯)의 각 집행위원(各 執行委員)은 당해(當該) 관내(管內)의 경호(警護)의 임(任)에 당(當)함.

제2조 지방(特別구) 집행위원회에는 경무집행위원(警務執行委員) 1인, 구집행위원회(區執行委員會)에는 구경무집행위원(區警務執行委員) 1인을 치(置)하며 구집행위원(區執行委員)은 구경호(區警護)의 임무(任務)를 겸임(兼任)함.

제7조 지방(特別구)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정원(定員)의 경호원(警護員)을 치(置)함.

제10조 구집행위원회(區執行委員會)는 지방(地方)에 경호대(警護隊)를 치(置)함.

제13조 지방경호대(地方警護隊)는 구집행위원회(區執行委員會)의 지휘에 의(依)하여 지방자위(地方自衛)에 대(對)한 경호사무(警護事務)에 종사(從事)함.

...(중략)...

제18조 지방(特別구) 경무집행위원(警務執行委員)은 경호기결조례(警護既決條例)에 의(依)하여 즉결처분(卽決處分)을 행(行)함을 득(得)함.

...(후략)...(국사편찬위원회, 1974: 407)

경호조례 발포 이후, 국민부 경호원의 지속적인 활동은 경호조례 13조에 지방경호대의 기록을 통해서, 각 지방에 경호대가 존재했으며 지방자위를 담당할 수준에서 경호원의 인원수도 상당했다고 파악된다. 이는 국민부 소속의 경호단장이었던 김병태(金炳泰)의 체포 내용 중에서, 국민부의 일개 지방 분단(分團)에 지나지 않았던 경호단(警護團)도 경호단장(警護團長)을 비롯하여 27명의 단원이 존재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1년 2월 9일에 국민부 무분지방의 경호원인 김근진(金根鎭)이 만주 무순서(撫順署)에 의해 체포되었다(『동아일보』 1931년 2월 14일 6면)는 등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국민부 경호원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3) 도(道)집행위원회를 구(區)집행위원회로 언급한 자료도 나타난다. “국민부(國民府)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에서는...경호(警護)에 관한 일절(一切) 행정사무(行政事務)를 지방집행위원회(地方執行委員會)와 구집행위원회(區執行委員會)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要旨)의 경호조례(警護條例)를 제정 발포하다(국사편찬위원회, 1974 『일제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9』, 407쪽).”

[신의주] 평북 창성군 창성면 신산석동 강영창(姜永昌, 22)과 평북 초산군 출생의 김병태(金炳泰, 24)는 치안유지법 위반(治維法違反)으로 취조를 받는 증인데 사건내용은 김병태는 신빈현(新賓縣)에 있는 국민부에 참가하여 지방공소(地方公所)의 경호단장(警護團長)으로 조선 xx(독립-연구자)운동을 계속하였고, 강영창은 역시 국민부에 참가하여 김병태의 부하 27인과 더불어 군인이 되어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2월 25일 봉천(奉天)에서 잡히어서 신의주 경찰서의 취조를 받고 3월 9일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이다.<sup>5)</sup>

### III. 경찰 업무에서 경호

1930년대 경호 활동은 각종 경찰 업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내용으로 경찰이 체포 또는 취조 중인 범인을 이동시키는 ‘호송(護送)’ 중의 경호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경찰 업무에서 범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등장한 경호가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한 ‘차량 경호’의 형태였다는 점을 주시하게 된다.

춘천서(春川署)에서 체포 취조 중이던 함남 풍산(豊山)의 송산(松山) 순사부장 총살범 정웅(鄭雄)과 그의 공범으로 이번에 같이 잡힌 춘천군 동면 기내리 윤경모(尹敬模) 등 양명(兩名)은 충남 강경(江景)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지난 6일 오후 1시 춘천 발 내선자동차(內鮮自動車)로 춘천서(春川署) 고등계 주임과 강원도 경찰부원 외 1명의 경호(警護)로 즉시 강경에 호송되었다. ...엷은 저고리 바람으로 자동차 위에서 떠는 것을 보고 경호하는 경관조차 그를 동정하였다.<sup>6)</sup>

기사들을 통해서 1930년대에 경찰이 범인을 이동시킬 때 이미 ‘호송(護送)’이라는 분명한 명칭이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범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호송과 구별되

4) “국민부 강동지방 공소의 경호대장(警護隊長)으로 있으면서 27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00(친일-연구자) 분자의 감시와 00(독립-연구자)자금의 모집운동을 하다가 지난 2월 25일 봉천형사경찰에 체포되어 이래 신의주 경찰서에 엄중한 취조를 받던 초산 출생의 김병태와 그의 부하 창성군 출생 강영창은 10일 일건서류와 같이 신의주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국부원(國府員) 1명, 무순(撫順)서 피체(被逮)』 『동아일보』 1931년 3월 12일 7면).”

5) 『국민부원(國民府員) 양명(兩名) 신의주(新義州) 검국(檢局) 송치(送致)-봉천에서 체포함래하여, 1명은 경호단장(警護團長)』 『조선일보』 1931년 3월 12일 2면.

6) 『권총단원(拳銃團員) 정웅(鄭雄), 강경서(江景署)로 호송(護送)-춘천서원(春川署員) 경호(警護)로 출발』 『조선일보』 1931년 2월 9일 4면.

는 ‘경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호송 외에도 인물에 대한 신변보호가 추가로 요구되었을 경우에 경호를 했음이 파악된다. 즉, 경찰의 업무로서 이동을 의미했던 호송과는 별개로 경호를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업무 상 호송과 경호의 역할이 구분되었음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호송과 함께 경찰의 경호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호위(護衛)’라는 표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상해에서 비밀결사 단체로 활동한 조선공산당의 관련자들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호송하는 경관들의 역할에 대해, 제목에서는 ‘경호(警護)’를 사용했지만, 내용에서는 ‘호위(護衛)’라고 보도한 것에서 확인된다.

…역사적 대 비밀결사 조선공산당 일차 간부 조직의 관계자 다수가…이역(異域)에서 그 주의(主義) 관철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마침내 연합경관대에게 포박되어 지난 15일 상해(上海)를 떠나 일본을 경유하여 18일 아침에 그리던 고국 부산(釜山)에 상륙한 후 잠시 피한 몸을 쉬었다가 부산경찰서 삼전(森田) 순사부장 이하 3명의 엄중한 호위로 서울을 향하여…7)

1930년대 경호는 신변보호에 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경찰의 업무가 오늘날 경비(警備)의 영역까지도 아우르고 있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아래의 첫 번째 기사는 금전 출납 장소 주변에 순경이 항상 경호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오늘날 은행에서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도 경찰의 경호 활동에 속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경호를 담당하는 경관의 복장을 택할 때 정복(正服)과 사복(私服)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경호 업무를 계획하며 위장을 염두에 둘 정도로 보안을 중시 여기는 당시 경호 인식의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강원도 통천군 벽양면 사무소의 이전을 반대하는 면민들의 폭동을 우려해서, 경관의 경호를 받으며 사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통천군의 군장이나 벽양면의 면장에 대한 신변보호가 아니라, 원활한 행정업무를 유지하고자 경찰에서 경호 인력을 파견하여 사무소에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경찰에 의해 투입된 경호가 경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전 출납하는 장소에는 순사가 상시 경호(警護)-평양 우편국에서 4백50원의 피도사실이 있었음은 기보(既報)와 같거니와 때가 마침 연말이어서 아무래도 연말특별경계를 할 때이었으므로 평양시에서는 이 연말경계를 한발 앞서서 12월 1일부터 부내 각 은행회사 금융조합 우편국 등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처소에 무장경관대를

7) 『망명(亡命) 5년 만에 구연흡(具然欽) 작야(昨夜) 입경(入京)-경호(警護)는 엄중(嚴重)』 『조선일보』 1930년 10월 20일 2면.

배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들 경관에게 정복을 입힐까 사복을 입힐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경찰당국은 세심한 주의는 다시 도난사실이 없도록 회방에 노력하리라 한다.<sup>8)</sup>

통천군 벽양면(碧養面) 사무소 이전 문제로 상리 12개 리구장이 반대를 언명하고 총사직을 단행하였다 함은 이미 본지에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홍분되어 있는 면민인 만큼 불의에 폭동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여 경찰당국에서는 경관 2명을 약 일주일 전부터 벽양면 사무소에 배치하여 두고 엄중경계를 한다고 하며, 반대면민들은 면에서 발송한 일반 공문은 절대로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한다.<sup>9)</sup>

다음은 창원군에서 각 면(面)마다 산불 위험과 벌목(伐木) 남발 등의 위해(危害) 요소로부터 산을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한 '임야경호단(林野警護團)'에 대한 기사이다. 대중과 경찰의 상호협력 하에 구성된 산림보호 조직에 대해 '경호단(警護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호가 당시 보호와 안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례이다.

[마산(馬山)] 창원군에서는 해마다 늦은 가을 봄에 산불의 빈발, 활엽수의 남벌(濫伐) 등의 피해가 상당한 숫자에 달하므로 그 보호 경비의 철저를 기약하고자 경찰당국과 도 협력하여 군내 각 읍면에 임야경호단(林野警護團)을 조직하고 각부락에는 분단을 설치하여 임야보호 경비의 강화 및 임리(林利)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해 시에는 정신적 활동과 방지에 노력할 것을 목적삼고 단원은 만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서 구성하며 일(一), 임야의 화재 및 경비, 이(二), 임야보호 및 녹화(綠化) 운동, 삼(三), 향토의 민풍개선, 사(四), 향토임야에 관한 연구조사, 오(五), 기타 임야 경호 및 향토 임야연구 상 필요사항을 단체활동에 의하여 장래 유용한 임산자원의 개발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한다.<sup>10)</sup>

8) 『평양(平壤) 시내에 연말 특별(特別) 경계(警戒)』 『동아일보』 1933년 12월 1일 3면.

9) 『경관(警官)의 경호(警護) 하(下)에 행정사무를 집행(執行)』 『조선일보』 1935년 3월 27일 3면.

10) 『자원(資源) 육성(育成) 코저 임야경호단(林野警護團) 결성(結成)-창원군(昌原郡) 산화방비진(山火防備陳)』 『동아일보』 1937년 12월 3일 7면.

#### IV. 각종 행사에서 경호

경찰의 활동 범위가 공적인 측면으로 치중되면서, 대중들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들에서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sup>11)</sup>의 경호 활동이 오늘날 사설 경호업체와 유사한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1930년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설 경호의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공적인 수요가 부족하여 등장한 사설 경호는 ‘만보산(萬寶山)사건’<sup>12)</sup>의 경우에서 상세하게 드러난다.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의 경호를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가 맡은 내용과, ‘만보산사건’으로 평양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던 중국인들의 보호를 위해 평양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경호반’을 조직한 사례에서 당시 사설 경호의 필요성이 극명해지는 것이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보산사건’으로 많은 재한(在韓)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공적인 경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이미 사설 경호와 함께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民間) 차원의 경호조직까지 구성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번 각 처에서 중국인들이 뜻밖에 습격을 당한 중국들은 있던 곳을 피하고 불안한 중에 있음을 민망히 생각하여 시내 조선소년군 총본부에서는 전 조선의 각 지부에 지급지령을 발하여 여차한 폭행을 방지하도록 활동하고 또 위문의 방도를 취하려고 하였다. 또 경성의 소년군들은 작일 이래 다소의 식량으로 중국인을 위문하며 또 경호하고 있다 한다.<sup>13)</sup>

그동안 피난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귀국한 중국인은...13일까지 무료로 보낸 것은 끝냈고 남아 있는 1500여명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일반 평양시민들은 각 가지로 위문의 뜻을 표하여 중국인들도 안심하고...중국인 점원들이 나와 상점을 정리하

11) 사설조직으로서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의 창설에 대한 내용은 김정의, 1992 『한국소년운동사』, 164-169쪽에서 나타난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전신인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는 1922년 당시 조철호, 정성체에 의해 창설되었다.

중양고등보통학교의 체육교사였던 조철호(趙喆鎬, 1890~1941)에 의한 조선소년군은 경성(京城) 제1호대인 8명 대원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전국을 순회하여 확장되었다. 중양기독교청년회(YMCA) 소년부의 간사였던 정성채(鄭聖采, 1899~1950 납북)에 의해 소년부를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소년척후대는 전국적인 기독교청년회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확대되었다.

12) 1931년 7월 2일에 중국 장춘현(長春縣) 삼성보(三姓堡)에서 수전(水田)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충돌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한국인들이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박해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만열, 1996 『한국사연표』246쪽.

13) 『중국인(中國人) 위(爲)해 소년군(少年軍) 활동(活動)-경호(警護)에 힘써, 전단(全團)에 지령(指令)』 『조선일보』 1931년 7월 8일 2면.

고 있고, 예수교 각 교회 대표자들은 오늘도 돌아다니며 위문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는 15일 부터는 연와공(煉瓦工-연구자: 벽돌쌓기 작업공), 목공(木工)들도 작업장에 돌아가고 상점도 대개 열기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평양시민들은 극력 중국인들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활동기로 하여 민간경호반을 조직기로 되었다. 돌발적으로 수라장화하였던 평양시기도 작금에는 완전히 평온한 상태를 회복하였다.<sup>14)</sup>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는 사회의 각종 행사에서도 경호를 담당했다. 아래의 첫 번째 기사는 팔도명창대회에서 조선소년군이 당일 장내외의 정리정돈을 위해 자진해서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기사는 사회사업가 백선행(白善行, 1848~1933)의 장의행렬에서 경호부장을 선두로 조선소년군이 등장한 경우이다. 장의행렬의 선두에 섰던 경호부장과 마지막에 자리 잡은 경호부원의 위치를 통해서, 오늘날 의전(儀典)경호의 한 단면도 엿볼 수 있다.

본보 경성서부(京城西部) 지국 주취로 오는 21일 밤부터 3일 간 조선극장에서 열리는 제2회 독자위안 팔도명창대회(八道名唱大會)는 별항 보도와 같거니와 조선소년군 제25호대에서는 당일의 장내장외를 정돈하기 위하여 자진 경호(警護)하기로 하였다 한다.<sup>15)</sup>

[평양] 사회사업 공로자 배선행 여사. 평양 사회장의(社會葬儀)위원회는 9일 정오 다시 장의사무소에 회합하여 위원 10명을 증보하는 동시에 장식에 관한 일체 의식과 위원회부서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여사의 사회장의위원회 의식부(儀式部)에서 결정된 장의식 순서와 및, 장의 행렬순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장의행렬순-경호부장(警護部長), 진영(眞影), 소년군(少年軍), 조기(弔旗)...영여(靈輿)-상주, 친척, 승인상고(崇仁商高)학생, 각 단체대표, 일반 수상인(隨喪人)남인(男人)부인(婦人), 소년군(少年軍), 경호부원(警護部員).<sup>16)</sup>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가 담당했던 각종 행사 속의 경호는 오늘날 운동경기 때 행하는 안전과 관련된 경호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아래 기사들은 빙상경기와 마라톤경기의

14) 『중국인(中國人) 귀환(歸還) 중지(中止)-민간(民間)에서는 경호(警護)』 『조선일보』 1931년 7월 14일 2면.

15)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이 장(場) 내외(內外) 경호(警護)』 『조선일보』 1931년 9월 21일 4면.

16) 『일체(一切) 결정(決定)된 장의(葬儀)의 절차-경호대 선두로 장사진 이루어』 『동아일보』 1933년 5월 11일 3면.

진행에 주요 위치를 차지했던 척후대와 소년군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원래 빙상 경기대회는 위험한 얼음의 운동이라 일반 관중과 참가 선수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함은 물론인 바, 특히 조선소년척후대(朝鮮少年斥候隊)와 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에서 각 십 오명씩 출동하여 장내의 경호에 힘쓰기로 하였는데, 일반 관중은 이에 절대 복종하여 서로 위험을 피하며 대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양보하기를 바란다. 일반 관람자와 출전선수 제군의 주의할 사항은 별항 사고를 참고하여 주기를 바란다.<sup>17)</sup>

경성과 영등포간 왕복의 50마일을 2시간 22분 5초로 다름질 한 것이 작년 본 대회에서 지은 김은배 군의 기록인데, 이 기록을 깨뜨리고자 마라톤 열에 타오르는 각 지방의 선수들은 눈 날리는 겨울부터 연습에 연습을...경성의 본 바닥 선수를 육박하려는 멀리서 상경할 지방 선수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르는 바 있으며...이번 대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조선소년군 본부에서는 특히 출발과 도착 당시의 잡담을 정리하기 위하여 경호를 맡아 보기로 하였으며...<sup>18)</sup>

각종 행사에서 경호의 중요성은 조선소년척후대와 조선소년군이 빙상경기 대회장 내에 질서유지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통해 부각된다. 일반 관중들에게 경호 활동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의와 함께 출전선수에게도 조심해야 할 사항을 보도한 것에서, 당시 대중들의 혼잡이 예상되는 행사에 경호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활동에 대한 당위성의 확보를 통해 당시 일반 대중들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었음을 유추하게 된다.

## V. 언론에서 해외 경호

해외 기사 중에서도 1930년대는 일본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당시 일본의 기사들은 주로 전화통화에 의존해서 수집되었고, 이러한 보도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경호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호에 관한 아래의 첫 번째 기사는 일본 정치인이 습격을 받았을 때 방호한 내용이다. '경호 엄중'을 제목으로 하고, "호위하던

17) 『척후대와 소년군, 장내(場內) 경호(警護)에 출동-일반은 이에 복종함이 좋다, 관람자의 특별주의할 일』 『동아일보』 1930년 1월 25일 7면.

18) 『경영(京永)마라톤 대회(大會), 제1회 때보다 2배나 격증(激增)한 지방 선수들의 진출(進出)-경호(警護)는 소년군(少年軍)』 『동아일보』 1932년 3월 19일 7면.

사람들의 비상경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당시 경호가 위급한 신변을 보호한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5.15사건’<sup>19)</sup>의 공판을 위해 범인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행한 경호 활동을 대서특필한 것으로, 차량 경호에 요구되는 이동 대형과 인원 수 등의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호계획을 사전에 보도한 점은 대외비를 강조하는 오늘날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지급전화(東京至急電話)] 약규(若槻) 민정당 총재(民政黨總裁)는 금택(金澤-연구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지부대회에 출석하였다가 21일 오전 7시에 상야(上野) 정거장에 도착하는 열차로 돌아왔는데, 역에서 나오려 할 때에 돌연히 머리를 바짝 깎은 청년 한 명이 단도를 번쩍이며 약규 총재에게 덤벼들었으나 호위하던 사람들의 비상경계로 총재는 무사히 자동차를 몰아 본향(本郷)에 있는 사저(私邸)로 들어갔고 청년은…현장에서 곧 잡혔다.…나이 약 30세가량 되어 보이는 장정 한 명이 문간에 찾아와서 자기는 이름 없는 청년이나 총재에게 만나고 싶다고 면회를 강청함으로 호위하던 사람이 막으려할 때에 가슴에 품은 단도를 발견하고…<sup>20)</sup>

[전통(電通)17일 동경(東京)전화(電話)]오는 24일부터 열릴 5사건(5.15사건)의 해군 측 공판에 대하여 해군당국은 형무소로부터 군법회의에 가기까지 연도(沿道-연구자: 길의 양쪽)의 경비에 비상히 염려하여 피스톨을 가진 경관 22명과 간수 7명, 헌병 7명으로써 피고가 타는 자동차를 호위하고 경부(警部) 2명, 간수장 1명, 헌병 조장 1명이 이를 지휘하기로 되었다. 또 피고의 탄 자동차를 경호하기 위하여 선두에 경관 10명이 탄 자동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피고의 자동차 3대, 그 다음에 경관 12명이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따라가게 되었다. 헌병과 간수들은 피고의 자동차에 같이 타기로 되었고 이 밖에 형무소로부터 군법회의까지의 연도에는 53명의 경관이 늘어서서 물샐 틈도 없이 경계하기로 되었다.<sup>21)</sup>

일본의 경호와 관련된 보도가 정치인이나 범인들의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일본의 옛 왕궁이었던 교토 내 대내산(오우치산)에서의 ‘경호연습’을 통해 확인된

19) ‘5.15사건’은 1932년 5월 15일에 일본 해군 급진파의 청년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무장한 일본 해군의 장교들이 총리 관저에 난입하여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1855~1932) 총리를 암살한 사건이다.

20) 『민정당 총재 약규(若槻)씨를 습격(襲擊), 경호(警護) 임중으로 요행(僥倖) 무사(無事)』 『조선일보』 1933년 11월 22일 2면.

21) 『무장(武裝) 경관(警官)으로 호위(護衛)』 『조선일보』 1933년 7월 20일 2면.

다. 옛 일본 왕궁의 근위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근위병은 물론 경찰부원까지 동원된 ‘경호연습’은 독(毒)에 대한 처리 순서를 제시한 방독(防毒)·소독(消毒)·구호(救護)와 더불어 연기(煙氣)차단 연습까지 진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의 경호 인식 속에서 위의 기사들과 같은 신변보호의 측면과 함께, 아래 기사처럼 독과 같은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까지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경 10일발] 방공연습(防空演習) 제2일의 10일은 대내산에서도 행(行)하였는데 오전 10시부터 궁성(宮城) 내(內)의 구본환(舊本丸)에서 탕천궁상(湯淺宮相) 이하 궁내(宮內) 직원(職員) 참관 하에 근위사단(近衛師團)의 원전중좌(原田中佐)가 지도한 근위병(近衛兵) 50명, 황궁(皇宮) 경찰부원(警察部員)…각 직원 150명이 방독(防毒), 소독(消毒), 구호(救護)의 실지(實地) 연습(演習)을 행하여 대내산은 오래간만에 긴장(緊張)한 광경을 현출(現出)하였다. 동 연습은 정오 종료하고, 오후는 다시…근위사단이 주가 되어 연막차차(煙幕遮遮: 연기차단-연구자)의 연습으로 적기(敵機: 적의 기계-연구자)의 습래(襲來: 습격하여 음-연구자)에 비(備: 대비-연구자)하였다. 대내산 경호의 연습은 오전, 오후 대성공 중에 종료하였다.<sup>22)</sup>

해외 유력 인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기사들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도 1930년대의 특징이다. 일본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던 경호 관련 기사들이 인도와 미국으로까지 그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하게 한다. 우선, 인도의 간디에 대한 신변보호 관련 기사의 제목은 ‘경호(警護)’이지만, 그 내용은 ‘호위(護衛)’와 ‘경위(警衛)’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경호’라는 명칭이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호위(護衛)나 경위(警衛)가 보호의 의미를 지닌 경호의 하위적인 표현으로 상용(常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예이다. 그 다음은 미국의 유명 여배우를 경호하는 모습에 관한 기사이다. 권총을 들고 있는 경호원과 장총을 들고 있는 정부 차림의 경관이 여배우의 양쪽에서 호위(護衛)를 하며 장갑차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서 해외토픽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함께 기사화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신변경호가 주류(主流)였는데, 외국의 연예인 경호를 접하면서 오늘날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광경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보석과 호사품(豪華品)에 대한 경호도 그 당시는 의아한 현상으로 여겼던 것이 드러난다.

12일 조조(早朝)에 드디어 대영(對英)○○반항행각(反抗行脚)을 떠난 간디씨의 출발전야였던 11일 야(夜)는…간디씨의 체포(逮捕)가 임추(臨追)하였다는 풍설

22) 『대내산(大內山) 경호(警護) 연습(演習)-대성공(大成功)으로 종료(終了)』, 『동아일보』 1933년 8월 11일 1면.

(風說)…약 천명의 군중(群衆)은 종야(終夜) 간디씨의 주소인 아슈람의 문전(門前)에 군집(群集)하여 깊이 우감(憂感)의 안색(顔色)을 가지고 철야(徹夜)하면서 문내(門內)를 호위(護衛)하였다. 그러나 간디씨의 아슈람은 용감(勇敢)한 부인검찰대(婦人檢察隊)의 손으로 밤새도록 엄중히 경위(警衛)되어 있어 간디씨의 신변(身邊)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23)

세계적 전황(錢荒-연구자: 돈이 귀함)의 이때에 미국 헐리우드의 명여우(名女優) 준 브라삼 양은 몸에 지닌 보석이 사십 만원 어치나 되는 고로 이렇게 전황한 때에 도적에게 빼앗기기 쉽다고 가까운 곳에 산보만 하는데도 피스톨(연구자: 권총) 든 사람을 호위로 세우고 장갑(裝甲)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별 기괴한 일이다 있습니다(사진은 그 광경입니다).24)

이처럼 국가별로 다양한 경호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는 경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철도경호’, ‘경호선’, ‘경호함’이라는 표현도 발견되었다. 아래의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의 안동현에서 열차전복을 시도했던 범인 체포 과정 중에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철도경호(鐵道警護)’에 관련된 소식이고, 두 번째 기사는 북극탐험을 할 때 운행했던 ‘경호선(警護船)’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노틸러스 호(號)’가 무사히 탐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쫓아가며 항해하는 배를 ‘경호선’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에서는 ‘경호선(警護船)’으로, 동아일보에서는 ‘호위선(護衛船)’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눈여겨보게 된다.25) 세 번째 기사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내의 화교(華僑)들을 싣고 중국으로 귀환하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함(警護艦)’26)의 등장을 다룬 내용이다.27)

[안동현(安東縣)] …열차전복기도범인 사살사건에 대하여 안동현으로부터 현

- 23) 『인도(印度)불복종(不服從) 시위운동(示威運動)-부인검찰대(婦人檢察隊) 철소(徹宵) 간디씨 경호(警護)』 『동아일보』 1930년 3월 16일 1면.
- 24) 『몸에 사십 만원 보패의 여왕-산보하는데도 호위의 장갑자동차와 총』 『조선일보』 1930년 12월 18일 5면.
- 25) 『호위선(護衛船)과도 작별(作別) 단독(單獨) 200리항주(二百哩航走) 노틸러스 호(號) 소식(消息)』 『동아일보』 1931년 6월 11일 7면.
- 26) 1930년대의 ‘경호함’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아직도 군사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경호함은 가까운 바다에서 경비, 호송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다.
- 27) 1930년대 당시 일본 치하의 한국 내에서 중국은 적국(敵國)으로 취급되었으며, 이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화교들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거주하고 있던 화교들의 중국 귀환이 이루어졌다.

병대원과 경찰서원이 현장에 급행하여 그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여 본 결과 당일 독립수비보병 제4대대 제1중대 봉황성 분전소 상등병령목충이(○木忠二)가 병졸 3명을 인솔하고 교려문 부근 안동지점 48킬로 7백의 지점에 잠복하라는 철도경호(鐵道警護)의 명을 받아...순찰병은 철도선로 측을 이용하여 점점 가까이 달려 들어 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나 감시 중에 이 수상한 자는...곤봉으로 대항하는 까닭에 이것을 사살하였는데...28)

우리 노-치라스 호(연구자: 노틸러스 호)는 프로빈스타운 출발 이래 이미 6일을 경과하여 뉴욕과의 거리는 1000로트 이상이 되었는데, 방금 배의 위치는 북위 40도 40분 서경 47도 50분. 어제 밤 이래 24시간 동안에 230로트를 항해하였다. 함상에 장치한 무선전신기와 무선전화는 비상한 호(好) 성적이요. 출발 이래 본 함에 따라다니며 활동사진을 촬영하던 경호선(警護船) 폰차-도레인 호는 드디어 오늘 저녁 6시 우리와 감명 깊은 해상의 이별을 하고 노-치라스 호는...29)

인천부(仁川府)<sup>30)</sup> 내에는 귀국하려고 모여든 지나(支那-연구자: 인천시 중구 선린동)<sup>31)</sup> 귀환자가 5천명이나 초과하여, 인천 지나가(支那街)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함은 누차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현재 인천 체류 지나인은 약 2천5백 명에 달하여 귀국할 방도로는 아파기선회사(阿波汽船會社) 공동환(共同丸)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공동환은 어느 지점에 체류하여 있는지 지점조차 알 길이 없고 설령 안다하여도 경호하는 군함이 없이는 취항치 않겠다하며 리통호(利通號)도 이로써 취항을 정지하고 있어...32)

28) 「범인은 곤봉(棍棒) 대항(對抗), 경호병(警護兵)은 방예(放銃)」, 『조선일보』 1931년 6월 10일 6면.

29) 「경호선(警護船) 포 호(號)와 양상(洋上)에서 이별(離別)-노틸러스 호(號) 소식(消息)」, 『조선일보』 1931년 6월 12일 2면.

30) 인천부(仁川府)는 1895년 음력 5월 26일 고종이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반포하면서, 신설한 23부 중 하나이다.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지방제도를 23부제에서 13도제로 다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천군이 인천부로 개편되었다. 인천부는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 전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지역에 해당한다.

31)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오늘날 인천 선린동(차이나타운) 지역의 화교들이 중국 산둥성(山東省)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된 상황은 '차이나타운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4년 4월 청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체결이 된 후로 화교들이 몰려와 생성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관의 상권이 마비되면서 화교들은 대만, 미국, 동남아시아로 떠나고, 일부는 요리집과 잡화상들을 운영하거나, 일부는 부두근로자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인천 차이나타운 공식홈페이지, [www.ichinatown.or.kr/introduce/intro02.asp](http://www.ichinatown.or.kr/introduce/intro02.asp), 2008년 9월 13일 검색)."

## VI. 결 론

1930년대 경호는 안전과 보호의 개념에 부응하는 다양한 경호 관련 활동들이 등장한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경호와 관련된 내용들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행정기관인 국민부 내에는 경호부와 경호분국이 설치되었고 경호 조례도 존재했다. 만주의 독립운동 관계자들은 국민부라는 한인 자치기관을 만들었고, 국민부 내의 공안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등장시켰으며, 이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무에 대한 관리기관을 새롭게 규정하는 경호조례까지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졌던 경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업무 속에서 차량경호, 면사무소 경호, 임야경호단 등 다양한 형태의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범인의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면사무소의 행정업무의 진행을 돕고자 이루어진 면사무소 경호, 산불·벌목과 같은 위해요소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경호가 보호와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경관의 복장에 대해 정복과 사복을 놓고 고민하는 점에서 보안을 중시했던 당시의 인식도 파악된다.

셋째, 경찰에서 공경호의 지원 부족으로 등장한 사경호는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대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실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방면은 물론, 병상경기와 마라톤대회 등의 운동경기를 비롯해서 팔도명창대회와 장의행렬 등 대중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 속에 안전 및 질서유지, 그리고 의전을 위한 주요 역할로서 등장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경호를 불가결한 요소로 여겼으며,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실 경호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에서 경호는 정치인 습격·범인의 이동·방독 연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비롯하여 철도경호·경호선·경호함의 등장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명칭과 함께 등장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경호가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고, 물건이나 유해물질까지도 포함되는 통괄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930년대 경호 관련 활동의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경호에 대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오늘날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기틀을 마련한 국내 경호 인식의 정착과 관련하여 경호사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32) 『지나(支那)가는 유일(唯一) 기선(汽船), 공동환(共同丸)도 취항(就航) 중지(中止)-인천(仁川)에서 대련(大連)까지는 가나 경호함(警護艦)없어서, 귀로를 잃은 2천 5백여 명』 『조선일보』 1937년 8월 28일 7면.

## 참 고 문 헌

- 국사편찬위원회(1968). 『한국독립운동사5』  
 \_\_\_\_\_(1974). 『일제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9』
- 김은정(2008). 『임시정부 수립 후 192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경호경비학회지17』.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정의(1992). 『한국소년운동사』. 서울: 민족문화사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6). 『독립운동사자료집10』
- 동아일보(1930). “척후대와 소년군, 장내 경호에 출동”. 1.25:7  
 \_\_\_\_\_(1930). “인도 불복종 시위운동-부인검찰대 철소 간디씨 경호”. 3.16:1  
 \_\_\_\_\_(1931). “국부원 1명, 무순서 피체”. 2.14:6  
 \_\_\_\_\_(1931). “김병태 등 송국-국민부 경호대장”. 3.12:7  
 \_\_\_\_\_(1931). “호위선과도 작별 단독 200리 항주”. 6.11:7  
 \_\_\_\_\_(1932). “경영마라톤 대회-경호는 소년군”. 3.19:7  
 \_\_\_\_\_(1933). “일체 결정된 장의의 절차-경호대 선두로 장사진 이루어”. 5.11:3  
 \_\_\_\_\_(1933). “대내산 경호 연습-대성공으로 종료”. 8.11:1  
 \_\_\_\_\_(1933). “평양 시내에 연말 특별 경계”. 12.1:3  
 \_\_\_\_\_(1937). “자원육성코저 임야경호단 결성-창원군 산화방비진”. 12.3:7
- 윤병석(1989). 『1920년대 후기 만주에서의 민족운동과 독립단』 『한국학연구1』. 경기: 인하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만열(1996). 『한국사연표』. 서울: 역민사
- 인천차이나타운 공식홈페이지(2008). [www.ichinatown.or.kr/introduce/intro02.asp](http://www.ichinatown.or.kr/introduce/intro02.asp)
- 조범래(1988). 『국민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 조선일보(1930). “망명 5년 만에 구연흠 작야 입경-경호는 엄중”. 10.20:2  
 \_\_\_\_\_(1930). “몸에 사십만원 보패의 여왕”. 12.18:5  
 \_\_\_\_\_(1931). “권총단원 정웅, 강경서로 호송-춘천서원 경호로 출발”. 2.9:4  
 \_\_\_\_\_(1931). “국민부원 양명 신의주 검국 송치-1명은 경호단장”. 3.12:2  
 \_\_\_\_\_(1931). “범인은 곤봉 대항, 경호병은 방예”. 6.10:6  
 \_\_\_\_\_(1931). “경호선 포호와 양상에서 이별-노틸러스 호 소식”. 6.12:2  
 \_\_\_\_\_(1931). “중국어인 위해 소년군 활동-경호에 힘써, 전단에 지령”. 7.8:2  
 \_\_\_\_\_(1931). “중국어인 귀환중지-민간에서는 경호”. 7.14:2  
 \_\_\_\_\_(1931). “조선소년군이 장내외 경호”. 9.21:4  
 \_\_\_\_\_(1933). “무장 경관으로 호위”. 7.20:2  
 \_\_\_\_\_(1933). “민정당 총재 약규씨를 습격, 경호 엄중으로 요행 무사”. 11.22:2  
 \_\_\_\_\_(1935). “경관의 경호 하에 행정사무를 집행”. 3.27:3

\_\_\_\_\_ (1937). “지나가는 유일 기선, 공동환도 취항 중지-경호합없어서”. 8.28:7

\_\_\_\_\_ (1937). “창원군 각 면에 임야경호단 조직”. 12.1:4

채근식(1949). 『무장독립운동비사』 서울: 공보처

## Abstract

### The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30s in Korea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on 1930s in Korea. This study used materials by historical facts for the regulations, books and newspapers in 1930s. In 1930s, security service was unknown details of the historical contents so far. There are four parts conclusion of this study: police depart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 agency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ecurity service agents of an independence movement, the general society of Korea. Firstly, Korean regional government in Manchuria, which Kokminbu(國民府) organized the security service agency(警護局) for protect government and public security. Most importantly, the security service agency appeared an important place which were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for Koreans in Manchuria. And the security service agency was required by the security service regulations(警護條例) as law. Secondly, diversity activities of security service in police were exposed the duty as 'car escort service(車輛警護)' for offenders, the 'township office guard' from mobsters, 'woodland protect service(林野警護團)' for fire-raisers. security service as police officer were widely application for protection and safety from danger. Thirdly, Mass society was needed to service for public security in daily events such as 'noted singer meeting', 'funeral procession to the graveyard', 'athletic meeting' as private establishment of security service agency in nowadays. people were wanted the private security service(私警護) from 1930s to present. Fourthly, Overseas security service mentioned in attack of politician, protect from poison and security service about train-vessel-fleet. In 1930s, security service is comprehensive protection which were not only bodyguard, but also safeguard for hazardous materials.

**Key Word** : security service history, security service agency, security service in police, security service for daily event, overseas security service

논문투고일 2009.04.29, 심사일 2009.05.14, 게재확정일 2009.06.10